

함께 추억 쌓으며 사랑 들퍼

엄마같은 이모됐어요

위탁 아동 돌보는 광주 화정동 이정숙씨



이정숙씨가 직접 만든 게임도구를 가지고 아이들과 함께 게임을 하고 있다.

“사랑과 믿음이야말로 아이들을 감동시키는 유일한 언어죠.”

함께 추억을 쌓는 것이 가족이라고 말하는 이정숙(50·광주시 서구 화정동)씨. 이씨에게는 특별한 가족이 있다. 바로 영준(8·가명)·영선(여·6·가명)남매. 아이들의 친부모가 경제적인 여력을 회복할 때까지 이씨와 2년 동안 함께 생활을 하게 된 위탁아동들이다.

처음 주변 사람들이 어떤 아이들인지 잘 모르면서 다른 아이들을 집으로 들이는 것에 대해 신중하게 생각하고 이야기했지만 신경쓰지 않았어요. 아이들은 순수해 믿고 사랑하는 만큼 결과를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이씨는 이미 지난 2005년에도 1년 동안 1살, 3살 된 위탁아동을 돌본 경험이 있다.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봉사

가 진정한 봉사라고 생각해 시작했던 일이지만 지천명(知天命·나이 50)을 일컫는 말을 바라보는 나이에 어린 아이들을 일일이 챙기는 것이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아이들이 안쓰럽다는 생각에 지극정성으로 돌본 결과 아이들은 이씨를 ‘엄마’라고 부르기도 했다.

그런데 아이들에게 따뜻한 가정을 보여주고 싶다는 좋은 의도로 시작한 일이 아이들에게 또 다른 상처가 됐다.

“나를 ‘엄마’라고 생각했던 아이들이 장애를 가진 친엄마에게 적응을 잘 못하더라구요. 그래서 공부를 시작했죠. 아이들을 대하는 법에 대해 제대로 공부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지난해 송원대학 부설기관 보육교사교육원에서 보육교사양성과정을

이수했던 이씨는 지난 7일부터 어린 이집 교사로 출근도 하고 있다.

이씨는 이에 대해 “아이들이 나이 50이 된 저에게 도전할 수 있는 용기와 희망을 준 것”이라고 말한다.

아이들을 양육하는 방법을 새롭게 배워가면서 자신감이 생긴 이씨는 또 다시 위탁가정을 신청했고 지금의 영준·영선 남매를 만났다.

영준이와 영선이를 처음 만난 날

이씨는 아이들에게 위탁가정에 대해

“우리는 특별한 가족”이라고 설명한 뒤 “엄마처럼 따뜻한 이모가 되어주겠다”고 약속했다.

친부모에게 버림을 받았다고 생각했던 아이들은 처음에 이씨의 시선을 피하는 등의 불안증세를 잠시 보이기도 했지만 이씨의 한결같은 사랑에 조급씩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해 웃음을 되찾았다.

지금은 어느 아이들처럼 학원 수업이 끝나면 친구들과 노는데 정신이

팔려 악속한 귀가시간을 아기기도 해 종종 이씨의 속을 태우기도 한다.

“아이를 잘 보살펴 안정된 친환경으로 되돌려 보낼 때의 보람과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어른들이 좀 더 책임의식을 갖는다면 이런 안타까운 일은 없겠죠. 좀 더 많은 가정이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었으면 합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내아이와 똑같이…’ 애정이 우선

위탁부모 되고 싶다면?

◇가정위탁제도단=이홍·빈곤·질병 등으로 친부모가 양육하기 어려운 18세 미만 아동을 친가정과 유사한 형태의 다른 가정에 맡겨 한시적으로 보호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03년부터 전국 17개 가정위탁지원센터에 사업을 위탁하고 있다. 위탁 주체에 따라 조부모에 의한 대리양육, 이모·삼촌 등에 의한 친·인척 위탁, 일반 위탁 등으로 나뉜다.

빈곤층이 증가하는데 이흔은

이 상승하면서 보살핌을 받아야 하는 보호아동은 해마다 늘고 있

지만 ‘남이 낳은 아이를 어떻게 키

우’는 식의 사고방식 때문에 일

반인 위탁가정 수는 많지 않은 상

황이다. 광주지역도 지난 2007년

경제력 갖춘 건전 가정

위탁부모 교육 받아야

전체 위탁가정 260세대 중 일반인 위탁가정은 47세대에 불과했다.

광주시가정위탁지원센터 유길원 소장은 “가정위탁은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에게 친가정과 같은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이 목적이”라며 “불쌍하다”거나 “귀염둥이” 하나 더 키워보자는 생각에 설립하려 나서는 것보다는 한 사람과 가족이 된다는 생각으로 차분히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위탁부모가 되고 싶다면?=먼저 봉사정신과 아동에 대한 애정이 필요하다. 가정위탁은 입양과 달리, 친부모 등이 다시 자녀를 키

을 수 있을 때까지 위탁가정의 호적에 올리지 않고 일정기간만 주민등록을 옮겨 거기으로 기른다. 단기보호(6개월~1년)부터 장기보호로 나뉘며, 보호기간은 정기적 평가와 친부모 등과의 협의를 통해 결정된다.

일반 가정에서 위탁을 하려면 위탁부모의 나이는 25세 이상이어야 하며 결혼후 아이를 키운 경험

이 있어야 한다. 경제적 여건이 되고, 범죄·학대 등 전력이 없는 건전한 가정이라야 한다. 위탁 가정이 하나 더 키워보자는 생각에 설립하려 나서는 것보다는 한 사람과 가족이 된다는 생각으로 차분히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원광대 보완의학대학원 김임 교수를 역임하고 현재 국내 구르

지예프연구소장으로 있는 김용

랑(37) 치료사가 강사로 나서 심신환(心身換)의 치유와 변화 등

山寺에서 춤추고 명상하며 우울증 등 심리치료 하세요

산사에서 춤추고 명상을 하면서 우울증 등 심리치료를 할 수 있는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전북 김제 금산사(주지 원행스님)는 28일부터 2월 1일까지 경내 선원에서 ‘춤 명상 템플스테이’를 진행한다. 명상과 무용치료를 결합한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으로

는 국내 처음 시도되는 것이다.

이는 애초 전주대 대체의학대학과 전주에 수련원이 함께 설립한 통합의학센터의 심리치료 과정으로 도입됐다가 불교적 명상

등을 가미한 프로그램으로 확대한 것이다.

원광대 보완의학대학원 김임 교수를 역임하고 현재 국내 구르

지예프연구소장으로 있는 김용

랑(37) 치료사가 강사로 나서 심신환(心身換)의 치유와 변화 등

을 지도하게 된다. 구르지예프(1877~1949)는 옛 소련의 신비주의 운동가로 현대 정신의학을 접목시킨 서양적 선(禪) 수행을 했던 인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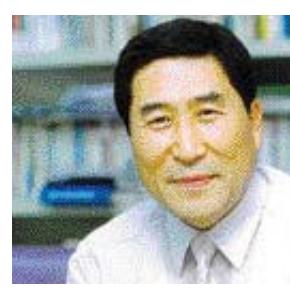
김 치료사는 8일 “이번 프로그램에서 구르지예프의 춤 명상을 기반으로 무용치료를 시도하게 된다”면서 “춤 명상은 단순히 몸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과 영혼까지 치유하는 통합의학모델로 개발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명상을 어려워 하는 사람에게 적지 않다”면서 “이를 현대 인에 맞게 다이나믹한 자기표현 예술로 확장한 것이 춤 명상”이라고 덧붙였다.

자세한 내용은 금산사 홈페이지(www.geumsansa.org) 참조.

/연합뉴스

종 고 카 래



희망의 새해가 밝았다. 새해에는 절망에서 희망을, 병에서 놓여 건강함을, 가난에서 부유함을, 극한 양극화의 갈등에서 화합을, 심한 시장 경쟁주의에서 서로를 배려함을, 집단 이기주의와 개인주의에서 서로를 인정하고 나눔을, 두려움에서 용기를, 동서와 남과 북이 보다 더 가까워지는 해가 되기를 기도한다.

남의 발목이나 잡으며 남의 힘을 이용해 이익을 추구하는 아비한 마음에서 서로를 배려하고 허리를 뒤어주며, 마음과 마음을 같이 나눌 수 있는 따뜻한 새해가 되기를 기도한다.

태안반도의 기름 재해가 빨리 복구되어 도리어 전화위복이 되기를 기원

김 유 수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한다. 새해에는 그 어떤 천재이든 데발적인 재난이나 사고가 없기를 기원한다. 그러나 문제는 신이 내린 희망의 새해가 시작되었지만 사람들의 마음가짐과 삶의 태도이다. 어제와 오늘, 오늘과 내일이 별 다를 바 없고 지난해와 올해가 별 다를 바 없지만 사람이 편의상 불러 새해라 하는 것 같다.

“아침이라서 해 뜨는 것이 아니라 해 뜨니까 아침이다. 희망을 가진 사람은 해를 가진 사람”이라는 말이 있다. 장소가 바뀌고 시간이 바뀐다고 새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바뀌어야 새것이라는 의미인 것이다.

새(新)라는 한문의 의미가 설립자(立)와 나무목자(木)와 도끼(斧)가 함께 한 단어란다. 나무뿌리에 도끼가 놓여 있다는 것이다.

성경에 “얼마 맷지 못한 나무뿌리에 도끼가 놓였으나 찍어 불에 던질 것이다”는 말씀이 있다. 나무 구실을 뜯하면 도끼로 찍어버린다는 경고이다. 나무는 도끼에 찍히지 않기 위해 나무다운 나무가 되려고 힘 쓴다는 교훈으로 필자는 생각한다.

새해를 맞는 필자의 마음의 다짐을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는” 마음으로 시작하려 한다. 큰 것이 아닌 작은 것으로부터 감사하며 나누며 살아가려고 한다.

어느 시인의 기도처럼 너무 뛰지 않는 빛깔로 누구에게나 친구로 다가서는 이웃으로, 그러면 서로 말보다는 행동이 뜻을 전하는 진실로 앞서는 사람의 사랑이 되고 싶다.

넓고 큰 인연에 못 미치더라도 제 주변을 따사롭게 하는 조그만 사랑부터 시작하고 싶다. 그간 드물게 골고루 빛을 보내는 헌됨처럼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인정을 베푸신 주님처럼 골고루 사랑하는 삶을 실천하고 싶다.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는 마음으로... (월광교회 목사)

공부하는 스님들이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각오를 밝혔다.

이어 영조 스님은 “특별포교기금을 조성해 광주, 순천 등 대도시 개발 지역을 중심으로 포교활동에 기틀을 마련하고 광주·상무지구內 무각사·토지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송광사에 상설 템플스테이 시설을 확보해 대중들이 편안하게 쉬며 사찰의 정취를 느끼고 불교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송광사 내에 상설 프로그램과 시설도 마련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대인동삼일부동산

☎ 02-223-1140, 5210 원 011-802-2532
(광주원 신분점, 대인동 소방서 건너편)

모텔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을 빨리 팔고 싶으시거나 임대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저희 부동산은 오래도록 광주시내권 및 시외손님으로 모텔·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사설분과 얕으실 분 손님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소유하고 계신 건물을 팔거나 임대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일해 드리겠습니다.

다면, 사장님께서 저희 부동산에 내놓으신 소증한 건물을 절저하게 비밀보장하여 조용히 팔아드리겠습니다.

첨단월계공인중개사

☎ 097-4585 원 011-804-6205
(첨단지구 부령A LC빌딩 사거리)

★ 금 매 매 ★

① 첨단 인근 비아동 일반주거 지역 1000평 대세대주택, 빌류철고, 빌지지사시설

② 첨단중심 상업지역 200평, 매 280만원 (공시지가 260만원), 230평

첨단중심 상업매매

·정부지방청사 2008년 개점지 앞 314평

부영·호반아파트 정문 앞 145, 135평

·백화점·호수공원 부근 유동지역 100평

첨단 원룸 건물 금 매

·대 68 건 145 원룸 17 쓰리룸 1개

보7000만 원 495만 원 5억 3천만 원

·대 70 대 110 원룸 15개

보2000만 원 480만 원 44억 8천만 원

·대 70 원 210 원룸 6 투룸 3 주

인 5개 보 1억 2천만 원 180만 원

·대 49 원 1천원

·대 68 원 127평 + 주차장 투

룸 4 원룸 8 보800만 원 300만 원

용4200만 원 44억 7천만 원

첨단 인근 녹지 금 매매

·신기동 부영④ 부근

생산녹지 900평

·안평동, 비아 중흥④ 부근

생산녹지 900평

·도천동 광동 8번지 부근 450평

700평 광장, 정고적 학

구지 2동 지하 1동 100평

부구 지하 1동 300평도 인근 전후면

도로집 가든, 치킨, 카페, 공장 적합